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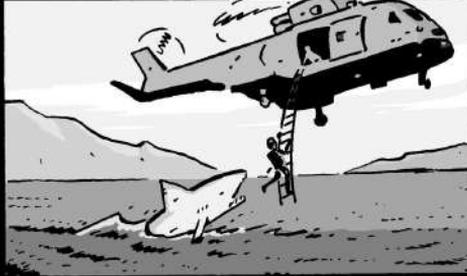
# contraband



내 휴대폰은 여전히 스팸등과 가득차 있다.

문자, MMS, 동영상 등 - 모든 종류등이 맞이다

내 동료등이 내게 모든 최고의 컨텐츠등 보냈다. 저 거대한 백상아기는 -  
헝거컴퓨터에 매달려있는 병사에게 손상같이 당겨드는 놀이였다.



승어머거총 항 아이가 네죽조 기등에 묶여 있었다. 정말 고전적이군!



그리고 저 세르비아의 장군, 그의 군대가 수십년 전 천여 명의 마음  
사람들에게 총을 쏘아댔다는군.



콘트라밴드 맵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그등은 모두 그맵에서  
탐 생크됐을 거라고 확신한다. 존재하지 않았지만.

요즘 사람들은 확실히 그 맵에서 무엇이든 본다. 그리고 지금  
그등은 내 여친 동영상에 영광하고 있지.



아프가니스탄 2월 1일

살갓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영국군이 주요 도시 핫스팟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주며, 매주 다섯가지 금액을 벌어들이는 용병으로 활약했다. 군대가 점차 이 지역에서 철수됨에 따라 그녀와 같은 특수 부대 용병들이 특히 불안을 자극하기 위해 동원됐다.



주요 종교 및 정치 세력들이 안그래도 부족한 자원을 서로 싸우는 데에 사용했다면 그게 원거이다.



- 그들은 서방군을 공격하는데는 덜 집중한다.



이 사람이야?  
하지만 뒤에  
아이들이  
타고있는데.



애들이  
있는데  
뭐?

이것은 샅것과 같이 고용된 용병들이  
적군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경찰, 일반 민간인  
조차. 거의 모두.



하지만 저쪽에서 일어난 온갖  
비열한 일들 때문에..



그들이 자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냥 보내자.

빚어 먹음, 그  
정수 없어.

특히 터커는 말이다.



저 새끼잖아야  
해.



상갓의 계약 마지막 날까지, 터커는 천여시강 이상 분량의 모바일 영상을 찍었다. 근거거 전투 사상자, 골짜기 보복 공격 공포영상, 길거리 폭격으로 인한 양민학살, 살아남은 주동자의 처형장면 등.

교외에서 보여주는 아주 자극적인 거지. 동요 녀석들이 집에 갈려 바베큐 굶는 장면이나 용기는 주린 괴는 차림이 더럽다고.

엇.

개네들은 노획 편집증이 시작되는 것처럼 고등학교 쓰레기짓이나 그거워하고 있지.

'익스트림' 조고는 멀티플레이어 공승, 폭탄 상자, 잔디밭을가로질러 '긴즈 앤 조지스'를 뽐내는데 장면을

상갓은 터커가 미친 영상 제작 수준 알고 있다고 말했다.

터커, 닥쳐 중개?

?!

타 타-타타타

그는 모바일 아카이브 종 채우는 데 중독되어 모든 종류의 작은 전투, 거기 다름, 가족 다름, 사소한 가정 폭력 사건을 찾아다닌다.

터커?





하지만 다른 중독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행동은 직연적으로 주변사건들을 위협에 처하게 한다.

이 멍청이는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거야?



중무장하고 가장 잘 훈련된 군부대조차도 터커가 좋아하는 동네에 감히 들어오지 못했다.

나는 항상 이 영상이 샷것을 유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적!

그녀를 다시 찾는 데 도움이 되거  
거고는 생각도 못했다.

6월 1일 (4개월 후) 뱁기에, 브뤼셀

모든 도시의 주요 열차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음울한 시립동맹 짜거처럼 정문 주변은 맴돌고 있다.



건넌에선 "월드 시가넷 게이싱턴" 옷이 벗겨보이도록 자랑하는 건.



담배 회사가 스포츠 행사 등을 후원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 브뤼셀이다. 그래서 네 생각에 이 뱁기에 너석은 정말로 말보로 제거거 자켓을 살 돈이 없다.



# contraband

TJ Behe와 Phil Elliott의 콘트라밴드.  
프록로그 전당. 2004년 6월. 금세기 가장  
파괴적인 기술인 소셜미디어와 비디오  
휴대폰의 융합을 위한 급조법 진원지이다.  
이것은 긍정적이고, 사회적 향상시키는  
역동성의 시작일 수 있다. 하지만 터커 스콧이  
먼저 그곳을 선택했다.  
해커들이 소셜 앱의 통제권을 탐  
인플루언서들에게로 옮기면, 평범한 일반  
시민기자는 무자비한 기업가, 십자군  
여성활동가, 그리고 넘버원이 되기 위해 돈과  
명성을 쫓는 모든 사람들의 폭력적인 혼란  
사이에 끼어 버리고 만다!

해커들이 소셜 앱의 통제권을 탐 인플루언서들에게로 옮기면, 평범한 일반 시민기자는 무자비한 기업가, 십자군 여성활동가, 그리고 넘버원이 되기 위해 돈과 명성을 쫓는 모든 사람들의 폭력적인 혼란 사이에 끼어 버리고 만다!

해커들이 소셜 앱의 통제권을 탐 인플루언서들에게로 옮기면, 평범한 일반 시민기자는 무자비한 기업가, 십자군 여성활동가, 그리고 넘버원이 되기 위해 돈과 명성을 쫓는 모든 사람들의 폭력적인 혼란 사이에 끼어 버리고 만다!

해커들이 소셜 앱의 통제권을 탐 인플루언서들에게로 옮기면, 평범한 일반 시민기자는 무자비한 기업가, 십자군 여성활동가, 그리고 넘버원이 되기 위해 돈과 명성을 쫓는 모든 사람들의 폭력적인 혼란 사이에 끼어 버리고 만다!

WWW.MARKOSIA.COM

ISBN 978-1-913802-60-8

90000



9 781913 802608

